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구성 배경과 내용 체계*

김 정 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요 약〉

청소년의 금융 생활 조기 참여, 위험사회, 고령화, 실업 및 조기퇴직, 국제 금융위기, 신용사회, 저금리, 부(富)에 대한 열망 등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금융은 개인과 가계 및 국가 경제생활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개인이 일생주기를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상 합리적인 판단과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 원동력은 청소년을 위한 조기 학교 금융교육이다.

금융교육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금융지식만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계적 경쟁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과제이다. 국민들이 금융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여 위험 관리와 부의 창출 및 일생주기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계의 경제와 사회적 복지 및 국가의 경제 정책의 성공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현재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 여러 나라는 청소년 금융교육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절약과 저축, 용돈관리와 금융정책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내용 체계성과 분량의 정도가 부족한 편이다.

금융교육은 일반적으로 금융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여 ‘금융의 기본개념, 금융정보 활용, 개인금융 관리, 금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미래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설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금융교육 내용 체계를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달성하기를 기대하

* 이 논문은 한국경제학회·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2010. 11. 04)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며, 그 원천은 김정호·권유진(KICE), 김경모(경상대), 박영석(경인교대), 차경욱(성신여대), 천규승(KDI), 한경동(외국어대)이 공동 연구한 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의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내용 표준안 개발’ 연구 과제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e-mail: sanja@hanmail.net

는 성취기준 형식으로 내용 표준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사의 금융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학생이 사용할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금융교육의 의의와 동향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subprime crisis)로부터 시작된 세계적 금융 위기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고용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였다. 여기에 일상 경제생활에서 카드와 신용 등의 거래가 늘어나고, 저축에서 투자로 이행되는 추세에 따라 개인의 증권시장 진입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설계와 위험대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을 보면 가계의 경제생활은 대부분 금융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자산구조면에서도 금융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자산 배분 중 부동산 비중(2010년 - 76.8%, 미국 2006년 - 36.0%, 일본 61.7%, 캐나다 50%)이 높은 편인데, 향후 노령화와 저출산율 및 인구감소로 주택보유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내려가는 대신 금융자산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한국일보, 2010. 3. 19.).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은 자연스럽게 금융이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관심을 둘 것이다.

모든 경제 거래에 따른 이해관계는 자기 책임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금융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경제주체는 위험관리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증대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금융 환경의 변화와 일상 금융 생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정확한 상황 판단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금융이 매우 중요하데, 금융지식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론화되는 배경이다.¹⁾

전통적인 금융교육을 반대한다는 관점에서 Against Financial Literacy Education이라는 논문²⁾을 쓴 미국 로올라 법대 Lauren E. Willis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인의 퇴직 후 준비부족, 주택담보대출의 거품, 저금리에 기인된 신용카드대출 등을 들면서 금융이해력교육이 저축과 투자

1) 김정호 외(2010)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에서 학생·교사·부모 960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9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3.5%가 금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5.5%였다. 특히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64.6%)보다 금융 생활의 경험이 있는 교사(94.1%)와 학부모(93.6%)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 및 금융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금융 관련 지식(38.5%)과 금융 교육 자료는 부족하다는 응답(44.1%)이 많았다. 이는 현재의 금융 교육 여건이 금융 교육 수요자의 요구만큼 갖추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IOWA L. REW, 197(2008)에 실린 논문을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전문을 옮겨서 ‘금융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2010)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내용은 제목과 달리 금융이해력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전부를 금융전문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하며 (문제가 생기면) 전부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결과에 반대한다는 취지라고 옮긴이는 소개하고 있다.

및 신용에 관한 결정을 좀 더 잘 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금융교육 동향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하여 미국·영국·일본 및 우리나라 등이 정책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이제 학교는 국가 발전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개개인의 금융역량과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여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개인이 일생주기를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하고 사회가 안정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상 합리적인 판단력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일이다. OECD는 누구든지 가능한 한 일찍부터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교가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었다. 특히 2008년 이후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는 개인의 금융역량이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알고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교육 내용 체계와 실현 전략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국제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OECD는 2009년 12월 15-16일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 열었던 ‘OECD 브라질 국제 금융교육 컨퍼런스’를 통해 최근의 제도, 인구, 금융, 위기 전개 상황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배경 때문에 학교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³⁾

- 새로운 세대는 앞 세대보다 더 많은 금융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학생들은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 연구 결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금융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고
-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 역량을 길러 주기는 쉽지 않고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금융역량의 불평등 현상이 있다.

즉 금융교육은 모든 연령층에 다 필요하지만 부모세대보다 현재의 아이들이 복잡하고 세분화된 금융 상품을 접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서 금융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젊은 층의 금융 교육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금융 서비스(휴대폰, 통장 개설, 신용카드 등)를 활용하게 되었지만, 그것에 필요한 금융 지식수준이 낮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학교 금융교육이 필요한 배경을 이런 데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금융교육을 학교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 세대가 모두 일정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 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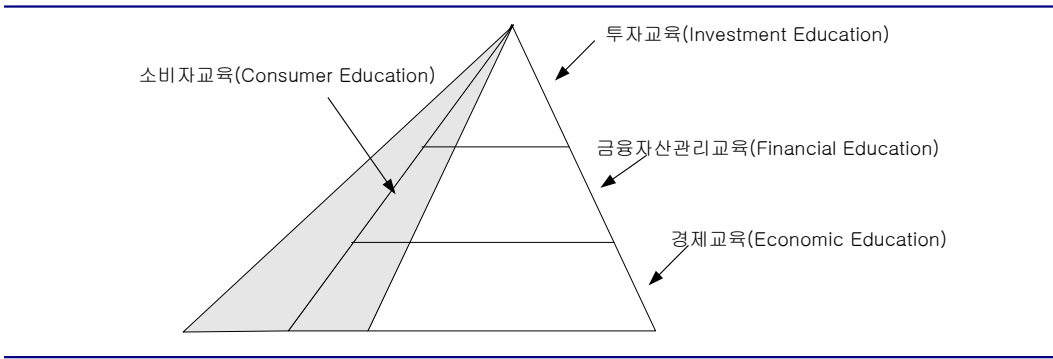
3) <http://www.oecd.org/dataoecd/33/42/44280029.pdf>

라 학교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기간이 길어서 학교 금융교육은 장차 성인이 될 아이들에게 건전한 금융 문화와 행동 양식을 가르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금융 습관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은 사회과의 경제교육과 실과/기술·가정과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다. 개인재무관리교육(personal finance education), 금융소비자교육(financial consumer education), 금융·자산관리교육(financial education), 금융이해력교육(financial literacy education) 이라고도 하는 데, 외국에서는 주로 퍼스널 파인런스 교육(Personal Finance Education)이 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금융교육 하위 영역을 나누면 화폐관리교육(money management education), 투자교육(investment education), 소비·저축교육(consumption and saving education), 신용교육(credit education) 등이 된다.

우리는 개인금융만이 아니라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로 ‘금융교육’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금융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림 1〉 경제교육과 소비자교육 및 금융교육



출처: 日興 파이낸셜 · 인텔리전스.

우리는 금융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금융 현상에 참여하여 사실과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는 전략적 사고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고 그 미션(mission)을 잡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목표(goal)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금융 역량과 건전한 가치관과 행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애주기 실현은 교육의 목적이고, 지식과 기능은 그 수단이며, 행태는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란 연령대에 관계없이 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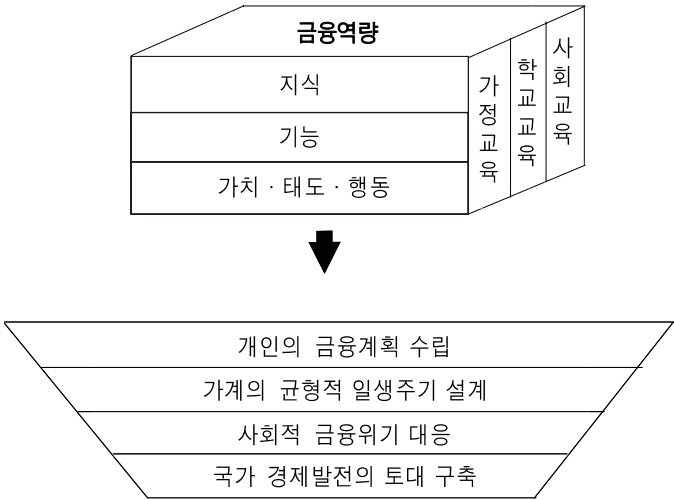
은퇴 후 노령기에 경제적 빈곤 상태를 맞이하기 쉽다. 이는 평생동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이라 할 수 없다.

즉 금융교육은 개인이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자산을 보존, 증대시키는 지식을 배우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지 재무적, 경제적 자원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금융환경을 이해하고, 가치관, 태도 등 비재무적 자원을 관리하는 통합적 과정이다.

금융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계는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고 기대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할 수 있다. 효율적 소비의 실천, 저축과 대출, 투자와 보험 등의 적절한 활용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실질구매력 하락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인과 가족이 기대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금융계획 수립에서 가계의 일생주기 재무설계와 사회적 금융위기 대응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까지 구축해 나가는 것이 금융교육의 목표 체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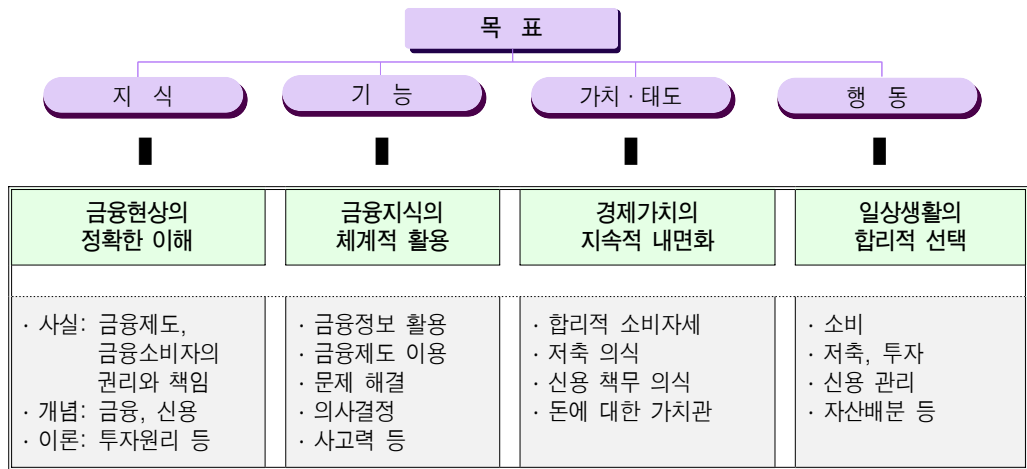
〈그림 2〉 금융교육 목표의 체계도



이 기본 목표를 학습 목표로 구체화시키려면 내용과 활동을 묶어야 한다.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간직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목표이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그것에 맞는 방법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내용은 범위와 계열에 따라 결정되고, 활동은 인지적(지식과 기능)·정의적(가치·태도)·행동적(실천 행동) 영역으로 나뉜다.

〈그림 3〉 금융교육의 영역별 목표



금융교육의 지식목표는 금융현상 자체(fact)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을 잘못 알게 되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 금융생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기능만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내면화를 통한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목표는 결국 금융과 관련된 선택과 판단 및 결정을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 금융교육의 동향은 어떠한지 보자.⁴⁾ 학교교육의 모든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비롯된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찬된 교과서를 국정 → 검정 → 인정 교과서 순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은 사회과와 실과/기술·가정과에서 주로 하는 데, 2007·2009 교육과정 개정시 사회과에서 소규모지만 강화되어 왔다. 국가 교육과정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1990년대 이후 학교금융교육 강화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이나 방법 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의 사례를 당연히 참조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만 여러 나라의 금융교육 내용 구성 범주만 참조하기로 한다. 외국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김정호 외(2010), 천규승(2010)에 있으며, 특히 미국 상황은 Justina Cross(2010)과 Dna Otter(201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과부, 2008).

〈표 1〉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금융 관련 내용(2010년 현재)

학교	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가정과 교육과정	
		관련 단위	관련 개념	관련 단위	관련 개념
초	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희소성 - 경제적 선택 - 경제적 의사결정 (생산자/소비자) - 소득의 원천 및 용도 - 소비자 권리 		
	5	없음			
	6			생활 자원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자원의 사용과 환경과의 관계 - 생활시간의 관리 - 용돈의 계획과 현명한 소비자로서 태도와 능력
중	7			청소년의 소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의 소비특성 - 소비생활평가 및 소비 생활실천
	8	없음			
	9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 -경제적 선택 - 국가 간 상호의존성 - 경제체제의 의미와 특징 - 소비자, 생산자, 정부의 역할과 책임 - 일생의 신용관리, 자산 관리 등 재무설계 		
고	10-12			【가정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자원 관리 - 가정경제의 설계 - 소비문화와 소비자주권 	금전, 재무계획, 신용, 금융상품, 소비자 역할
		【경제】	경제생활과 금융(단원)		
		【생활경제】	가계와 소비생활(단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단원)		

* 과목명: 초 - 사회, 실과 / 중 - 사회, 기술·가정 / 고등학교 - 선택과목.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학년 사회: (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한다.
- 경제 활동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확인한다.
- 다양한 일을 조사하여 생산 활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

- 소득의 원천 및 용도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 및 저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 6학년 실과: (3) 생활 자원과 소비

- 생활 자원의 종류를 알고 주변의 생활 자원의 사용과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한다.
- 나의 생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돈의 개념을 이해하여 용돈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소비하여 현명한 아동 소비자로서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7학년 기술·가정: (2) 청소년의 소비생활

- 청소년기의 소비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소비생활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 9학년 사회(2009 개정): (10)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

- 경제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와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일생 주기 동안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저축, 투자 등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탐색한다.
- 재정 활동을 이해하고 경제 활동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파악한다.
- 정보화, 세계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각 경제 주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 고등학교 가정과학

(4) 가정 자원 관리

- 가정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시간, 금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 가족 유형에 따른 가정 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의 원인, 영향을 파악하고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가정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관리한다.

(5) 가정 경제의 설계

-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생애 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 계획과 관리 능력을 기른다.
- 소비자 신용,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여 가계 재무 관리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활용함으로써 가정 경제의 관리 능력을 높인다.

(6) 소비문화와 소비자 주권

- 시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 형태의 원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 소비자 주권을 알고 소비자 문제를 이해하며,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정 자원과 소비자’ 관련 직업 세계의 탐색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한다.

□ 고등학교 경제 (2009. 12. 개정고시): (6) 경제생활과 금융⁶⁾

개인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 금융생활에서 나타나는 수입·지출·신용·투자·시간 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 현재와 미래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한다.
-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고, 신용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 자산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 금융생활의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은 ‘학교급별 금융교육 내용 및 체계성·일관성 부족’이라는 내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관문이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금융교육 내용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2.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체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전통적으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라는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발달과정은 ‘지식 knowledge → 이해력 literacy → 역량 capability → 실행doing으로 이어진다. 사회현상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기억은 모르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 자체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것을 가지고 다양한 사고 작용을 해 보는 이해력 단계로 발전해 가야 된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만으로

6) 이것은 금융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의 한 단위 수준으로 구성된 최초의 사례이다.

사회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 객관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나면 스스로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현실에 배운 것을 적용해 보는 것이니, 실행력이 빠지면 최초의 계획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정도이고, 학습자의 내면에 체화된 역량 정도와 실행 여부는 그 밖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학교가 지식만 가르치고 끝난다는 말은 아니고, 역량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해 나가지만, 효과를 바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 내용은 주로 지식과 기능 중심이 되는 데, 앞으로는 직접 참여와 창의적인 체험 활동 등 실천 과정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금융교육이 바로 그러하다.

금융교육 표준적인 내용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제시하는 문서의 구성 형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당연히 그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주요 내용 요소이다.

먼저 내용 표준화 형식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이 대영역 → 중영역 → 성취기준 형식으로 구성된다. 물론 이것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구성하는 체제와 같은 형식이다. 즉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6) 경제생활과 금융은 그 자체로 독립된 한 부분의 내용을 총괄한 것으로서, 대영역이라 한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세분하여 중영역으로 제시한 뒤, 학습자가 성취하기를 기대한 결과를 성취기준이라 하여 ‘내용(현상) + 행동(역량)’으로 진술한다. 이 연구에서도 표준 내용은 교육과정 체계라는 형식을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금융교육 내용의 구성 체계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금융현상의 독립적 단위로서 교과서에서는 단원이 됨 예) 저축과 투자 신용 보험	대영역의 하부 구성내용 예) 저축 투자	교육과정에 중영역의 학교급별 학습 목표를 내용 + 행동 형식으로 제시 예) • (초) 은행을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만들고,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 (중)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 (고) 금리변동,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한다

다음에 교육과정형 성취기준에 담아 내고자 하는 표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자. 금융교육 내 이라면 금융상품과 기본개념 및 위험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상 기회활용과 위기관리를 잘 하여 부(well-being)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금융교육 내용을 나눈다면 ‘사실 - 개념 - 일반화’라는 지식 체

7) 학습목표는 대체로 Bloom의 목표분류(taxonomy)에 따라 ‘지식(안다),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내용과 연결시켜 진술한다.

계,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료수집, 정보분석’과 같은 기능, 정직과 배려 및 기분 등과 같은 가치 · 태도에 대한 것이 바로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내용 체계를 이러한 논리로 잡아 가기로 하고, 먼저 외국 사례부터 참조하였다.

여기에서는 외국 사례의 대영역만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대영역 구성 취지와 체계에 따라 금융교육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특징은 금융 현상의 내용보다 학습자가 익혀야 할 역량 중심으로 내용 체계 요소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국과 호주의 활용능력과 책임능력 등이 그러하다. 물론 미국의 저축과 투자, 일본의 저축과 자산운용 등 금융활동 자체를 요소로 내는 경우도 있다.

〈표 3〉 외국의 금융교육 내용 체계 요소

미국	영국	호주	일본
금융책임과 의사결정 (Financial Responsibility & Decision Making)	금융지식과 이해력 (Financi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 및 이해력(Knowledge & Understanding)	자금관리와 의사결정
소득과 직업(Income & Careers)	금융활용능력(Financial skills and competence)	판단 능력(Competence)	저축의 의의와 자산운용
계획수립과 돈 관리 (Planning & Money Management)	금융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	활용 능력(Enterprise)	생활설계
신용과 채무(Credit & Debt)		책임능력(Responsibility)	자립적인 소비자
위험관리와 보험(Risk Management & Insurance)			금융분쟁과 다중채무
저축과 투자(Saving & Investing)			건전한 금전관리

미국: 출처: Jump\$tart,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Third Edition, 2007)*

<http://www.jumpstart.org/national-standards.html>

영국: ‘Financial Capability through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http://publications.education.gov.uk/eOrderingDownload/Financial_capability-KS1&2.pdf

호주: National Consumer & Financial Literacy Framework

(http://www.mceetya.edu.au/verve/_resources/Financial_Literacy_Framework.pdf)

일본: 일본금융홍보중앙위원회(<http://www.shiruporuto.jp/teach/school/program/program202.html>)

여러 나라가 구성한 금융교육 내용 체계는 다르지만, 유사한 경향성은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및 호주는 금융상 의사결정이나 금융활동 또는 활용 능력 등의 행동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생활설계나 소비생활을 내세우는 면도 있지만, 경제 및 금융체제와 같이 사실적인 지식도 포함시켜 놓았다. 이 차이는 금융역량과 금융지식의 목적 비교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지식과 역량은 모두 중요한 금융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만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표 4〉 외국의 금융교육 목표 비교

	영미형	일본형
해당국가	영국, 미국	일본, 한국
금융교육 목표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Knowledge
	1) 지식과 더불어 실행에 관심	1) 금융지식의 향상에 중점
	2) 대상자의 능동적인 참여	2) 다양한 지식의 전달
	3) 합리적인 의사결정	3) 지식의 제공과 습득

출전: 윤계섭 · 김근수 · 변진호(2006). 금융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투자자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미국과 일본은 모두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action을 강조하고 일본은 지식(knowledge)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리고 Financial Capability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Financial Literacy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경으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금융교육의 목표로 하는 데에는 모든 국가가 다를 바 없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금융교육 내용의 특징은 다양한 금융현상 자체를 대영역의 분류 기준으로 설정한 점이다. 이것은 내용 중심으로 설정하는 미국과 일본 모형과 유사하며, 역량 중심으로 구성한 영국과 호주와는 다른 체계이다. 외국과 다른 점은 금융상의 의사결정이라는 요소는 같도록 하였지만, 다른 내용요소는 역량 중심이 아니라 현상 중심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과와 가정과) 교육과정 구조가 현상 내용과 개념을 주제로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갖추기를 기대한 금융이해력(financial understanding)과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및 책임감 있는 금융행동을 목표로 하여 ‘5개 대영역 → 13개 중영역 → 90개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었다.⁸⁾

이 중에서 대영역 ‘금융과 의사결정’의 합리적 금융생활 중영역의 성취기준을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우선 ‘돈’ 자체가 우리 경제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이해하도록 한다. 물론 상품거래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알지만, 여기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장경제 질서를 배경에 두고 경제 거래는 비용과 편익을 교환하는 것이고, 그 매개인 돈이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토록 하려는 것이다. 중학교가 되면 금융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정보의 중요성과 자기 책임을 강조한다. 고등학교는 더 나아가서 금융현상의 여러 가지 중요 변수인 물가와 금리 및 환율까지 의사결정에 참조토록 사고의 범

8) 성취기준은 2010. 5월부터 11월까지 7명의 연구진이 60여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하였고, 내용 전체는 금융감독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보고서 김정호 외(2010)에 있으며, 향후 교육과정 반영과 교수 · 학습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영역	중영역	설정 배경 및 취지
I. 금융과 의사결정	1. 합리적 금융생활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금융관련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돈의 의미 혹은 금융의사결정이 개인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과 의사결정’에서는 돈의 중요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살아가면서 재정자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한다.
	2. 개인재무관리	
	3. 금융서비스와 보호	
II. 수입과 지출관리	1. 예산	금융교육이 크게 ‘돈을 이해하고, 돈을 벌며, 돈을 쓰고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이라면, ‘수입과 지출관리’에서는 이 중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금관리(cash management)라고 불리는 영역으로써, 금융교육에서 매우 기초적이면서 전통적인 영역이다. 돈을 잘 벌고 잘 쓰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습한다.
	2. 수입	
	3. 지출	
III. 저축과 투자	1. 저축	저축과 투자는 가계 금융생활의 기본을 형성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저축이란 개인의 입장에서 현재의 소득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소비자원으로 유보하는 행위, 투자란 저축수단의 선택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저축자는 자금의 공급자, 투자자는 자금의 수요자이므로 저축과 투자는 동전의 앞뒷면을 형성한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경제학자들은 저축과 투자 사이의 명시적 구분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이란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금융생활에 필요한 개개인의 기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저축과 투자’에서는 둘 사이의 현실적 구분을 염두에 두고 저축과 투자의 개념, 필요성, 방법 및 관련 제도 등을 학습한다.
	2. 투자	
IV. 신용과 부채관리	1. 신용관리와 대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신용의 기록과 관리 및 조회가 쉬워지면서 경제생활에서 신용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사용은 현재 예산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용 사용에 따른 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불이행을 유발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신용과 부채관리’에서는 신용 사용 및 대출의 장단점과 실제적인 실행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인지하고, 부채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해한다.
	2. 부채관리	
V. 위험관리와 보험	1. 위험관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위험(risk)에 직면하게 된다. 위험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위험관리는 재무적, 비재무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는 것이다. 보험은 위험관리의 대표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관리와 보험’에서는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인과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위험관리와 보험’에는 은퇴설계가 포함되었다. 은퇴설계는 평균수명의 연장,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조기퇴직의 증가, 노후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은퇴설계와 상속, 증여 등의 내용은 하나의 대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교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축소 반영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수준에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어 초등학교 성취기준은 제시하지 않았
	2. 보험	
	3. 은퇴설계	

위를 넓혀가기를 기대한다. 이 중영역은 결국 금융상 판단과 결정은 일상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물론

이런 일은 성인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최소한의 의식 정도만 형성할 수 있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I. 금융과 의사결정	1. 합리적 금융생활	초	1. 상품 거래에 돈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2.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3.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중	4. 금융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금융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6.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고	7.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8. 통화, 경기, 물가, 금리, 환율, 세금이 금융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9.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금융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0. 금융거래약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금융교육 표준안 활용 방안과 과제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의 목표에 근거한 내용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운 뒤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전체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영역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림 4>와 같이 ‘성취기준 설정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내용 반영 →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사 연수 → 성취도 검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당초의 목표에 맞도록 진행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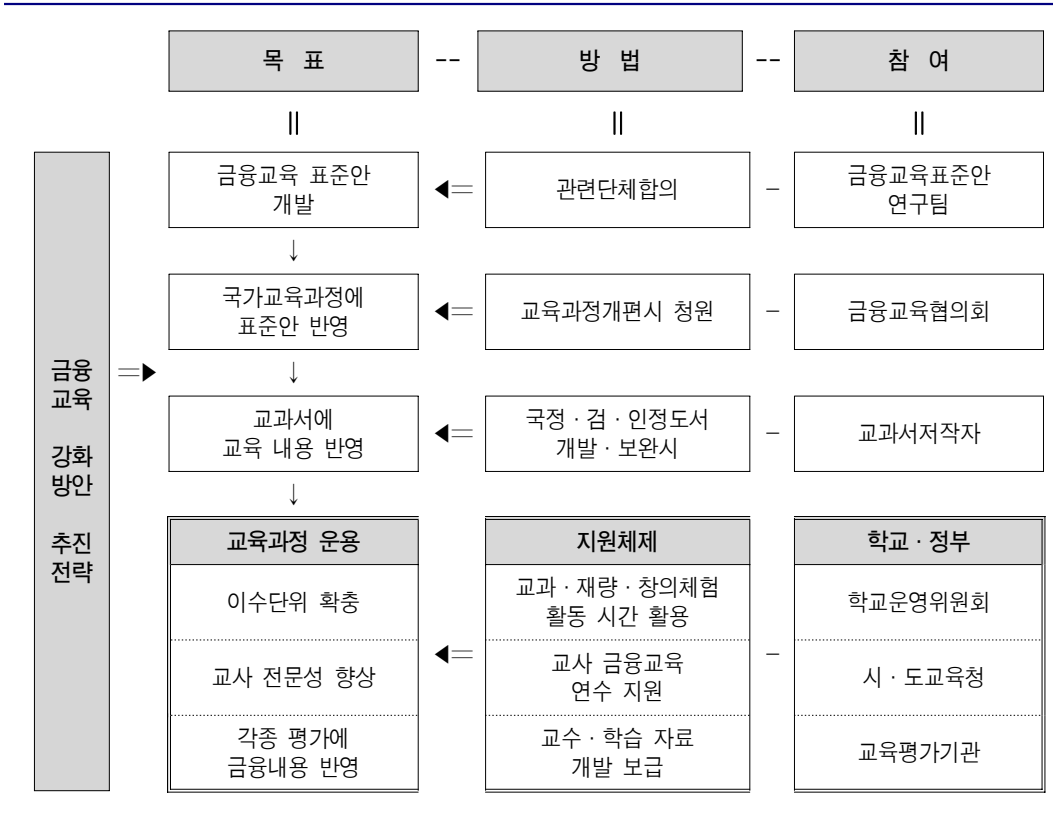
그 첫 단계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부문이라도 교육과정에 없으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에는 금융교육 내용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조기 금융교육을 표방하는 외국 사례나 시대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교육과정에 금융 내용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언제 다시 교육과정 각론을 개정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취기준을 사회과와 가정과 교육과정 어느 학년 어느 부문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다듬어 놓아야 한다.

교육과정에 내용을 반영한 다음에는 교과용도서를 편찬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준비를 또 해야 한다.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에 교육과정 취지에 맞도록 금융교육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제공과 내용 자문 등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물론 그 다음 교사가 가르치는 과정에도 적절한 자료와 방법을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학교 금융교육 강화 과정



더 나아가서 학교 밖 사회금융교육에도 이 성취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투자자협회 및 여러 금융기관에서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적·경험적 근거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반의 공통표준 모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금융교육 내용 표준안은 사회 금융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기획할 때 내용 구성의 표준 모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표준안이 다수의 관계 전문가가 선행 여러 사례를 참조하여 개발하고, 학교를 비롯한 금융교육 기관의 검증을 통해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금융교육 표준안은 ‘국가 교육과정 반영, 인정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금융교육 연수 등’의 준거가 된다. 특히 금융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인정도서를 개발할 때 이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 구성을 하면 체계가 설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규 교육과정 운용과 방과 후 학교 및 창의체험 활동 등과 금융교육을 연계시키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제는 앞으로 학회와 관련 기관이 공동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금

금융교육은 학교와 사회 및 정부가 연대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교육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정 어젠더를 모두 학교교육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에 대한 지원만을 할 수 없다. 학교도 국가 교육과정 내용과 정책 현안 및 자체별 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교육에 자원 배분을 많이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하여야 금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금융계와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그 지원의 주체가 되어 금융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 금융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교사 교육 연수와 연구지원, 학교-사회 연대망 구축 및 운영, 금융기관 현장 체험 학습장 제공, 청소년 금융 이해력 경시대회 개최, 금융교육 연구지정 학교와 공동연구 등을 공동의 협력으로 해 나갈 수 있다. (끝)

■ 참고문헌

- 김정호 · 권유진 · 김경모 · 박영석 · 차경욱 · 천규승 · 한경동 (2010), 초 · 중 · 고 금융교육 표준안, 금융감독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계섭 · 김근수 · 변진호 (2006), 금융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과 방안: 투자자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 천규승 (2010),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한국경제포럼 (2/4), 한국경제학회.
- 일본 ‘金融弘報中央委員會’ (<http://www.shiruporuto.jp/teach/school/program/program201.html>).
-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역 (2010. 6), Lauren E. Willis 저(2008), *Against Financial-Literacy Education*(금융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 Cross, J. (2010), *Strengthening Financial Education in California: Expanding Personal Finance Training Among Youth*, Working Paper 2010-02,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ww://frbsf.org/community](http://www.frbsf.org/community))
- Jump\$tart (2002),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www.jumpstartcoalition.org).
- Jump\$tart (2007),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Third Edition (<http://www.jumpstart.org/national-standards.html>).
- OECD-Banque du Lib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Education (2009), Building Financially Empowered Individuals Send Print 20-21 October 2010(http://www.oecd.org/document/3/0,3343,en_2649_15251491_45580483_1_1_1,00.html, <http://www.oecd.org/dataoecd/33/42/44280029.pdf>).
- Otter, D. (2010), *Teaching Financial Literacy in K-12 Schools: A Survey of Teacher Beliefs and Knowledge*, Dissertation, The Uni. of New Mexico.
- Pfeg (2001), *Developing financial capability in young-Scotland*: Framework(www.pfeg.org.uk/scot.htm, www.dfee.org.uk).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2002. 10), *Integrating Financial Education into School Curriculum*(www.treas.gov/offices/domestic-finance/financial-institution/fin-education).
- http://publications.education.gov.uk/eOrderingDownload/Financial_capability-KS1&2.pdf
- http://www.mceetya.edu.au/verve/_resources/Financial_Literacy_Framework.pdf